ען בב

100

LG생활건강, 노인돌봄서비스광역지원기관에 후원물품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제공〉

광주시노인맞춤돌봄서비스광역지원기관이 최근 LG생활건강에서 후원받은 생활용품 1만 6000여 상자를 19개 수행기관에 전달했다.

배분된 물품은 생활용품, 식료품, 화장품 등 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1만 2089명 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시노인맞춤돌봄서비스광역지원기관은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업단으로, 일상생 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만65세 이상)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조호권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 다"며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두 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 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 유은재군 100만원 기부…최연소 나눔리더 가입

유은재(광주고등 학교2년)군이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성금 100 만원을 기부하고 광 주제12호나눔리더 로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100 만원 이상 기부한 개인 기부자 클럽으 로, 유군은 올해 첫 가입 나눔리더이자 최연소 나눔리더로 이름을 올렸다.

유군은 "첫 장학 금을 어떻게 사용 하면 좋을지 고민 하다가코로나19로

극복하자는 뜻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가입 소감을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성도 사무처장은 "장학금을 기부한다는 것은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함께

쉽지 않은 선택이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 하는 유은재 학생의 마음이 무척 따뜻하고 소 중하다"며 유은재 학생의 가입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2022 나눔리더

광주 12호 광주고등학교 2학년

은 재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호남호국기념관, 순천문화원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협약

나눔리더



광주전남법무보호복지공단, 미건설주식회사와 후원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가 최근 미건설주식회사(대표 이미진)와 후 원기업 협약을 맺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제공〉



호남호국기념관(관장 이형남)이 최근 순천문화원(원장 조옥현)과 지역사회 문화 예술 교육을 활 성화하고 지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교 육 활성화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호남호국기념관 제공〉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 황일봉 초대 회장 등 임원 선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 원회가 최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임원을 선출했다.

초대 회장에는 과거 남구청장을 역임 했던 황일봉〈사진〉 회장이 선정됐다. 임 기는 2년이다.

또 부회장 2명과, 감사 2명, 이사 10명 을 추가로 선출했다.

황일봉 초대 회장은 정견발표장에서 "5·18민주유공자 국가 유공자단체 등록, 보훈 급여금 문제, 5·18정신적 피해배상소송 문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일 등을 회원들과 함 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설 '고래' 천명관 작가 감독 데뷔



소설 '고래' (2004)의 작가 천명관〈사 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동료 작 가 김언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누아르 영화 '뜨거운 피'로 오랫동안 간 직해온 꿈을 이뤘다.

천 감독은 21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한동안 소설가로 살았지만 원래 영화감독을 꿈꿨던 사람"이라며

"충무로에 발을 디딘 지 30년 만에 영화를 만들었다. 감회가 복 잡할 것 같기도 한데,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전에는 제가 생각한 걸 글로 구현했다면, 지금은 조 금 더 복잡한 방식이지만 여러 사람과 협업을 통해서 하는 과 정이 매우 재미있었고, 또 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고 말했다.

천 감독은 영화 시나리오를 쓰며 연출을 준비했지만 여의치 못했고, 2003년 단편 '프랭크와 나'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 으며 등단했다. 이듬해 내놓은 '고래'로 문학동네소설상을 받 았다.

'뜨거운 피'는 1990년대 초, 부산 변두리의 작은 포구 구암 을 두고 벌어지는 밑바닥 건달들의 생존 싸움을 담았다. 영화 에는 만리장 호텔 사장 손 영감 역의 김갑수, 희수를 욕망으로 이끄는 마약 밀수꾼 용강 역의 최무성, 희수의 오랜 친구이자 구암을 차지하려는 영도파 에이스 철진 역의 지승현, 희수가 아끼는 새끼 건달 아미 역의 이홍내가 함께했다.

17:00 EBS 뉴스

19:00 레이디버그

19:50 극한직업

19:30 한국의 둘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7: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재)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 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꿀잼 영화가 좋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팔도밥상(재)	00 꽃 피면 달 생각하고(재)	15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45 뚝딱구조대(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생생정보 스페셜(재) 55 다큐멘터리 3일(재)	00 12 MBC 뉴스 20 트레이서(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제20대 대선후보 경력방송 05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5 UHD 숨터(재)	50 영화가 좋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네트워크특선 빅 부라더			00 뉴스브리핑
3	05 동행(재)	00 KBS 뉴스타임 10 또봇V(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백종원 클라쓰(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2022 MBC 드라마 프리미어 25 두 번째 남편(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우정뿅즈의 인싸투어(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20 생방송 토론740	50 사랑의 꽈배기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10 제20대 대선 방송연설 〈이재명 후보〉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노래가 좋아		2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꽃 피면 달 생각하고	00 호적메이트	5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	00 시사기획 창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방과 후 설렘 스페셜 55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비초청 토론회	
11	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 〈비초청〉			00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 비초청 국정전반
12		10 꿀잼 영화가 좋다(재)		

50 영상앨범 산(재)

05:30 클래스 e

06:10 세계테마기행

07:30 마법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숲속 배달부 빙빙

09:30 추피와 친구들

05:00 왕초보영어

05:50 한국기행

07:00 코코몽3

07:15 출동! 슈퍼윙/

0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8:30 엄마까투리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2:10 다큐영하 김 위의 인생(재)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EBS₁

14:10 EBS 다큐프라임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5:25 클래스 e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6:00 마샤와 곰

16:15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6:30 딩동댕 유치원(재) 16:50 명탐정 피트

〈더 늦기 전에, 중남미 -태양의 후예, 페루〉

21:30 한국기행

〈내 멋대로 산다 2부 추억으로 가는 흙집〉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 010-9790-8237





子

36년생 장기적인 동력원이 되어 줄 것이다. 48년생 다수인 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60년생 모두 차치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 72년생 바탕이 좋다면 절반의 성공은 보장 받은 셈이다. 84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 록 주의해야겠다. 96년생 한 번 결정된 일이라면 그대로 추 진하는 것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4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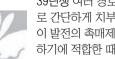
丑

37년생 충실히 대응하면서 알찬 여건으로 만들자. 49년생 고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61년생 상대 는 기본 포석을 깔고 접근하고 있느니라. 73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손해로 이어진다. 85년생 의외로 앞당겨져 서 진행될 수도 있는 대국이다. 97년생 장고해야만 내실 있 는 결론에 이르리라. 행운의 숫자: 44,56



寅

38년생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 터지는 대국이로다. 50년생 겹치는 일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62년생 길흉이 교 차하니 맹점이 없는지 살펴보자. 74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86년생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눈에 띤다. 98년생 유종의 미가 중하니 마지막 을 잘 장식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11,99



39년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니라. 51년생 절대 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63년생 전폭적인 성원 이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 75년생 계획하여 왔던 바를 실행 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87년생 시종일관 방심하지 않고 조 심만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 99년생 하늘과 땅이 조 화를 이루니 매우 길하다. 행운의 숫자: 45,59



辰

卯

40년생 성과 없이 유두무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52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이다. 64 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무방하 다. 76년생 기왕 행할 바에는 자발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88년생 변수로 인해서 힘들어지겠다. 00년생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3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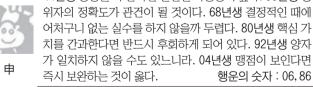
41년생 심기일전한다면 활기 찬 미래를 열 수 있다. 53년생 미리 준비 해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65년생 경사스런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에 싸여 있는 정황이다. 77년생 굳게 닫혔던 문이 신비롭게 열릴 것이다. 89년생 단 독으로는 힘들 것이니 함께 행하라. 01년생 마음에 들지 않 으면 선택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4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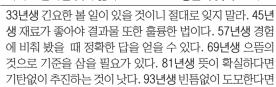


42년생 끈질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54년생 원인과 과정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66년 생 사소함에서 비롯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78년 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맞다. 90년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국이다. 02년생 진의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2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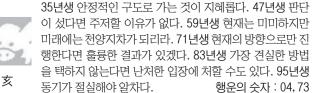
43년생 제 눈썹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55년생 희구 한다면 용기를 갖고 임해야 한다. 67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79년생 일마다 뜻대로 되어가니 행복해 하는 판세이다. 91년생 다양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실속이 얼마나 있느냐이다. 03년생 전체를 자세히 들여 다보고 판별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7,98 44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56년생 행





기필코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40,50 34년생 정성으로써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성사시킬 수 있는지 름길이다. 46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허히 수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58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주리라. 70년생 마주 대하고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 다. 82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해 왔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

하다. 94년생 상호 거의 비슷하다. 행운의 숫자 : 20,89





戌

酉